**3팀: 김도건 김진유 정의현**

**1) 문제 정의**

개선 전

* 취업을 앞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머지 나의 현재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.
* 취업을 위해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할지 모른다.

개선 후

- 자신이 어느 개발직군에 갈 지조차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.

- 개발직군을 선택한 학생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.

- 준비를 결심한 학생들도 자신의 현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,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 지 모른다.

해결된 상태

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자신이 어느 개발직군에 갈 지 정했고, 해당 직군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안다. 또한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역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, 어느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어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.

**2) 문제 인식 환경, 대상 및 범위**

- 문제 인식 환경: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상황

- 문제 대상: 학부생 및 취업준비생

- 문제 범위: 컴퓨터공학과 3학년부터 취준생까지

**3) 문제 선정 배경**

1. 지금 현재 팀원모두가 3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어, 가까운 미래의 취업을 걱정해야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삶과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해 선정했다.

2. 현장실습도 앞두고 있다.

**4) 문제 원인**

**-**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선배, 지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.

- 학생들이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모른다.

- IT 관련 직종의 범위가 너무 넓다.

**5) 문제 심각성**

**-** 한번의 선택에 개발자로서의 평생이 달려있다.

- 한번 선택한 직군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되돌리기 어렵다.

**-** 실무자 입장에서는 코드가 아니라 설계, 서버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보고 알아야 하는데 현재 학생들은 이에 대해 모르고 코드만 짠다.

- 뉴스에서 채용자 입장에서도 "당장 쓸 인재가 없다"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. 즉 "전문성 부족"이 큰 문제점이라는 것인데 통계에 따르면 72.4%정도가 해당된다.

- 한 중견기업 최고기술책임자(CTO)는 "석·박사급은 그나마 낫지만, 학부만 졸업하고 입사한 사람들은 실무 능력이 사실상 제로(0)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**6) 참고 문헌**

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\_dir/2016/10/04/2016100400242.html